

주간 테러동향

Weekly Terrorism Trends

'19. 11. 22(금)

지역별 테러 동향

Weekly Terrorism Trends

유럽

- 스위스, 최근 3년간 테러용의자 331명 입국 금지
 - 11.15 현지언론은 스위스 당국이 최근 3년간('16~'18년) 테러리스트로 의심되는 331명을 입국금지 조치를 했으며, 시리아와 이라크에 구금된 지하디스트 중 20여명이 자국민인 것으로 파악되었다고 보도
 - * 스위스 현행법상 테러 용의자에 대하여 추방·입국금지·국적박탈 가능
- 독일, 터키로부터 송환된 ISIS 가담 自國民 체포
 - 11.17 독일은 터키로부터 강제 송환된 ISIS 포로 9명 중 1명*을 테러 조직원으로 활동했다는 법원의 판단에 따라 귀국 직후 구금하였으며, 경찰은 터키와 시리아·이라크 등에 있는 독일인 ISIS 포로 95명 중 33명에 대해 조사를 실시하여 26명에 대한 체포영장을 발부
 - * 同 여성은 '14년 시리아로 건너가 ISIS 조직원과 결혼하고 조직원으로 활동

미주

- 美 국방부, 시리아內 미군철수 등으로 ISIS 재건 우려 제기
 - 11.19 美 국방부 감찰관실은 「트럼프」 대통령의 시리아 북동부 미군 철수 결정 및 터키의 시리아 침공으로 ISIS가 시리아內 역량과 자원을 복구하고, 해외지역 공격능력을 강화했다는 분석 보고서를 발표
 - * 미군 철수 후 주둔 중인 시리아와 러시아군이 ISIS 격퇴를 우선하지 않을 것이라 전망
- 美·탈레반, 인질과 포로 맞교환
 - 11.19 AFP는 탈레반이 3년간 억류하고 있던 외국인 포로 2명 (미국인 1, 호주인 1)*을 석방함에 따라 미국은 그 대가로 아프간 교도소에 있는 탈레반 고위급 지휘관 3명을 석방했다고 보도
 - * 아프간 수도 카불 아메리칸대학 교수로 '16.8月 탈레반에 의해 납치

아 · 태평양

- 中, 홍콩 인접 광저우에서 대규모 대테러훈련 실시
 - 11.18 中관영매체는 광저우 공안국이 테러범 진압·폭발물 처리·유해 화학물질 대응 등 테러 대응능력 향상을 위해 대테러 특수대응팀 등 1천여명이 참가한 대테러 훈련을 실시했다고 보도
 - * 일각에서는 홍콩에 무력투입까지 가능하다는 중국의 경고메시지라고 분석

중 동

- 아프간, 낭가르하르주에서 ISIS 조직원 등 집단투항
 - 11.16 아프간 軍당국은 동부 낭가르하르주에서 최근 사흘동안 ISIS 조직원과 추종자 241명(男71명, 女63명, 어린이107명)이 집단 투항했으며, 67정이 넘는 무기를 보안군에 넘겼다고 발표
 - * ISIS와 연관된 무장세력으로는 지난 2년 동안 최대 규모의 투항
- 이라크軍, ISIS 조직원 대거 탈옥 시도 등 재건 위험성 경고
 - 11.18 이라크軍 장성은 CNN과의 인터뷰에서 ISIS가 시리아와 이라크에 수용중인 조직원들을 대거 탈옥시키려는 계획을 세우고 있으며, 시리아에서 터키로 넘어간 ISIS 간부 9명이 핵심적인 역할을 하고 있다면서 관련 문건을 터키에 넘겼다고 언급
 - * 시리아 북부 수용소에는 ISIS 조직원 약 1만명이 구류 中

아 프 리 카

- 모로코, ISIS 추종 테러용의자 2명 검거
 - 11.17 경찰은 수도 라바트에서 ISIS의 극단주의 사상을 신봉하여 전자장비 등을 가지고 테러계획을 실행에 옮기려 했던 ISIS 추종 테러용의자 2명(男2명 / 30·34세)을 검거하여 조사 중이라고 발표

파키스탄 주재 中國 영사관 총격테러

- '18.11.23 파키스탄 최대 도시인 카라치 주재 中國 영사관에서 테러범 3명의 총격테러로 7명이 사망
 - 테러범은 폭발물을 탑재한 차량으로 돌진했으나, 건물 벽에 가로막혀 내부로 진입하지 못하고 경비병과 교전하다 현장에서 모두 사살됨
 - * 테러범과 교전 과정에서 파키스탄 경찰 2명과 영사를 방문한 파키스탄인父子가 사망
- 테러 직후 배후를 자처한 무장 반군조직 발루치스탄 해방군(BLA)은 중국이 파키스탄에서 추진 중인 「일대일로 사업*」을 반대하면서 “중국은 압제자이며, 우리의 재원을 착취하고 있어 공격을 지속할 것”임을 주장
 - * '13년 시진핑 주석이 제안한 ‘新 실크로드 전략 구상’으로 중국과 주변국가의 경제 및 무역에 대해 확대의 길을 연다는 대규모 경제벨트 프로젝트
- 파키스탄 당국은 BLA의 지휘관이 인도에 머물고 있다는 이유로 인도 정부가 테러 시도를 지원하거나 알고도 묵인 했을 수 있다는 의혹을 제기

< 발루치스탄 해방군(Baluchistan Liberation Army) >

- (목 표) 파키스탄·이란·아프간內 발루치스탄족 독립국가 건설('99년 결성)
 - * 테러단체 지정 : 영국·파키스탄('06년), 미국·EU('19년)
- (연계세력) 탈레반, 발루치공화군(BRA), 발루치해방전선(BLF) 등
- (활동지역) 파키스탄 발루치스탄주(이란 및 아프간 접경 산악지역)
- (주요활동) ① '00.7 파키스탄 발루치스탄주 재래시장에서 폭탄테러 37명 사상
 ② '10.12 발루치스탄 주지사 차량 폭탄테러로 주지사 등 8명 사상
 ③ '13.7 발루치스탄주 해군기지 공격으로 14명 사상

